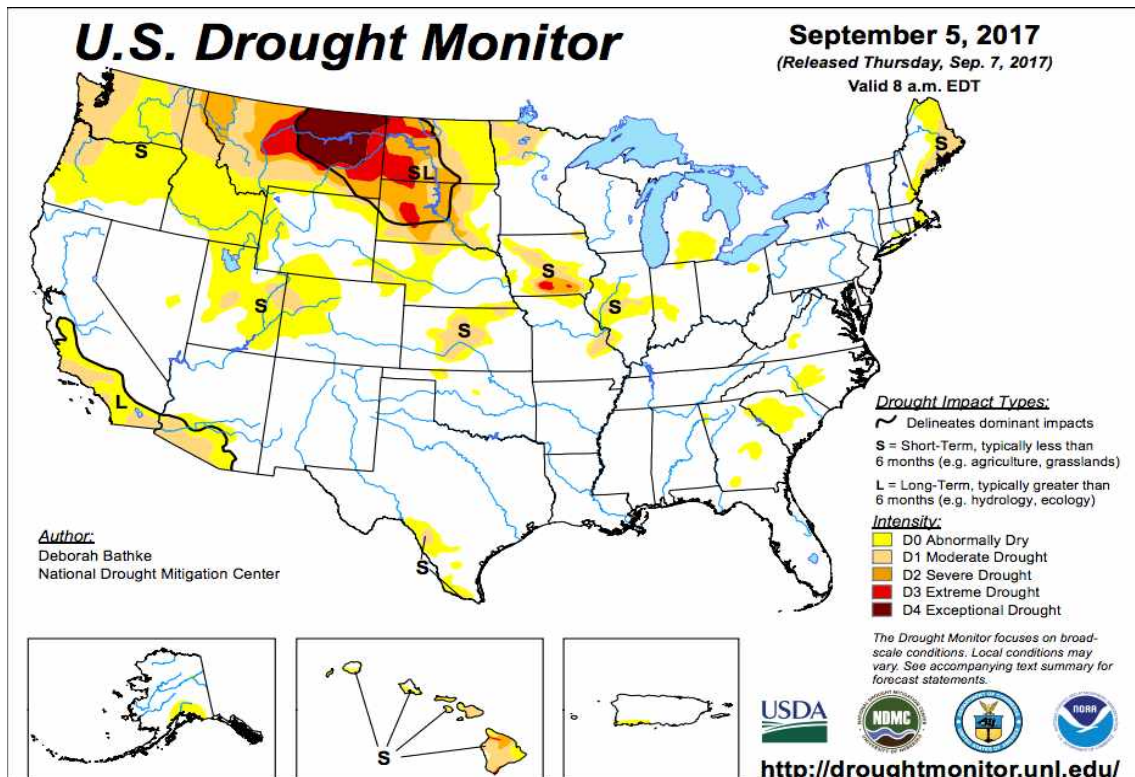


9월 12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4, No. 37)

□ 미국 기후 현황(9/3~9/9)

9월 10일 허리케인 Irma가 플로리다에 상륙하기 전까지 모든 지역에서 맑은 날씨를 보였다. 동부 전역에서는 평년에 비해 서늘한 날씨를 보였고, 반대로 서부 전역에서는 강한 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테네시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10°F 가까이 기온이 낮았고, 북서부 몇몇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10°F 이상 기온이 높았다. 중서부에서는 서늘한 날씨로 인해 옥수수과 대두 등의 더딘 성장속도를 보였다. 중서부 북부 지역에서는 곳에 따라 서리가 내리기도 했다. 뉴 잉글랜드와 플로리다 일대에서는 2인치 이상의 비가 내렸다. 남서부 사막지역에서도 비가 쏟아졌다. 태평양 연안 지역에서부터 로키산맥 북부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산불이 발생하고 있고, 산불연기로 대기질이 악화되고 일조량도 줄었다. 북부 고원지역에서도 계속해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농장에서는 먼지가 가득한 대지 위에 겨울밀 파종작업을 이어갔다. 주 후반에는 허리케인 Irma가 카리비안 해를 지나 플로리다에 상륙했다. St. John과 St. Thomas는 Irma의 이동경로 남부에 위치하고 있어 5등급 허리케인의 풍속 185mph에 이르는 바람에 의한 피해를 입었다. Irma는 9월 10일 lower Florida Keys 지역을 지났는데 이때는 풍속이 130mph로 제법 약해진 상태였다.



□ 농업 현황 요약(9/4~9/10)

동부에서는 지난 한 주간 기온이 평년에 비해 낮았다. 테네시 일대와 주요 옥수수 재배지 동부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최소 6°F 정도 낮았다. 반면, 서부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태평양 연안 북서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6°F이상 높았다. 중부에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고, 수확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플로리다에서는 주 후반 허리케인 Irma가 상륙하면서 많은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렸고, 일요일 밤 남동부 지역으로 이동했다.

□ 세계 기후 현황(9/3~9/9)

■ 유럽: 유럽 전역에서 비가 내렸다. 주 초반에는 강력한 저기압과 한랭전선이 이동해 들어오면서 폴란드를 비롯해 발칸반도 일대까지 10~75mm 내외의 비를 뿌렸고, 그리스에서도 5mm 이상의 비가 내렸다. 주 후반에는 대서양으로부터 강한 비구름이 형성되어 들어오면서 북부와 서부 일대에 10~60mm 내외의 비를 뿌렸고, 여름작물의 수확작업이 비 때문에 중단되기도 했다. 독일 중부와 남부에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거나 2~10mm 내외의 비가 내리다 그쳤다. 그리스의 면화수확작업은 차질 없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스페인에서는 지난 5월부터 비가 거의 내리지 않으면서 대부분의 저수지들이 매우 낮은 저수량을 보이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10~6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 구소련(서부):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서부 등에서는 10~85mm 내외의 비가 내리면서 최근 파종을 마친 지역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 주었다. 우크라이나 남부와 동부에서는 여전히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바라기와 옥수수의 수확량은 지난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 동아시아: 중국 북동부의 Heilongjiang, Jilin 서부, 내몽고 등에서는 10~25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북동부의 남쪽 일부 지역에서는 맑은 날씨를 보였다. 양쯔강 주변에서는 50~10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서부의 Sichuan, Chongqing, Hubei 등에서는 이례적으로 200mm 가까운 비가 내렸다. 남부 해안 일대에서는 25~10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벼 재배지역에 충분한 양의 용수를 공급해 주었다. Hunan, Jiangxi 등에서는 계속해서 가뭄이 이어지고 있다. 반한도와 일본 북부지역에서는 맑은 날씨 아래 벼가 익어가고 있는데, 일본과 달리 한반도 일대에서는 변덕스러운 날씨 때문에 벼 수확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호주: 퀸즐랜드 남부와 뉴 사우스 웨일즈 북부에서는 계속해서 비가 내리지 않는 날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때문에 겨울작물과 유지작물의 수확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여름작물의 파종작업도 계속해서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남동부의 빅토리아 지역에서는 5~2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남호주 및 뉴 사우스 웨일즈 남부지역에서는 주요 재배지를 제외한 지역에서 비가 내렸다. 서호주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였다.

■ 아르헨티나: 북부의 해바라기 재배지역에서는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였고, Salta에서부터 Buenos Aires 북동부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2~6°C 정도 기온이 높았다.



반면, 남부와 서부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서늘한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밤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기도 했다. 북부의 Formosa, Chaco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40°C까지 올랐지만, Buenos Aires 남부와 동부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20°C를 밑돌았다. 아르헨티나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9월 7일까지도 해바라기 파종작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많이 내려 비가 그친 후 다시 파종하기도 했다. 밤 기온이 영상권으로 회복해나감에 따라 파종작업은 남부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 브라질: 남부의 주요 밀 재배지역에서는 따뜻한 날씨로 인해 밀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Mato Grosso do Sul, Sao Paulo 남부지역 및 Rio Grande do Sul 등에서는 지난 한 주간 기온이 평년에 비해 5~8°C 정도 높았다. Rio Grande do Sul 일부 지역에서는 10~25mm 내외의 비가 한두 차례 내리기도 했지만, 그 밖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대체적으로 맑은 날씨를 보였다. Parana 주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9월 4일 기준 밀의 수확률은 16%인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지역 가운데 50% 정도는 아직 수확하기 이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이모작 옥수수의 수확률은 95%였다. 보다 북부의 Sao Paulo, Minas Gerais 등에서는 주 후반 비가 내리기 전까지 커피와 사탕수수의 수확작업이 진행되었다. Mato Grosso의 경우 9월 8일 기준 수확률이 97%를 기록했다. 북동부 해안지역에서는 계절적인 영향으로 10~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